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주님이 하셨습니다!



▲ 복음기도신문은 이러한 포장과정을 거쳐 매호 수천여 명의 독자들에게 발송된다. © 복음기도신문

##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름 어느 날, 공동체 식구 여럿이 모여 복음기도신문의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다. 저마다 앞에 놓인 신문을 접고 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단순 업무가 뭐 그리 재미있을까?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 때문이다. 복음기도신문에 담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 이들뿐 아니라 신문을 받아든 모든 이들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란다. “그를 높이라”(잠언 4:8)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온 것뿐인데,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전쟁, 난민, 박해, 선교 등 열방의 소식과 함께 울고 웃었다. 수많은 복음기도신문의 보발꾼들,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복음을 외치며 달려온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이다.

함께 외치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9) [GNNEWS]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 中, 내몽골과 조선족자치주에 민족말살정책 추진

초등학교에서 몽골어, 조선어 대신 중국어를 국어로

중국 공산당이 9월부터 내몽골자치구뿐 아니라 조선족자치주에서도 몽골어와 조선어 대신 중국어를 국어로 가르치는 등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을 따라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월 26일 네이멍구 교육당국을 통해 “새 학기(9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몽골어로 가르치던 중국어 과목을 ‘국어’로 이름을 바꿔 가르치며, 수업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2021년부터는 도덕과 법치(정치), 2022년부터는 역사를 몽골어 대신 중국어로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도 중국 공산당이 펴낸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신장위구르자치구, 2018년 티베트자치구에

서 펴던 정책과 같은 것이다. 또한 당국은 2023년 대입 시험에서 몽골인에게 부여하던 소수민족 가산점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또 9월 1일부터 지린성 등 조선족자치주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학생들이 조선어(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중국인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조선어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네이멍구의 몽골인 학생과 교사·언론인·공무원들까지 ‘민족문화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중인권단체 ‘남몽골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교육방침에 반발한 몽골인 학생들이 지난 1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에서 출발한다. 이는 진화론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도 공산주의와 배치된다면 이는 폐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족’ 역시 공산주의 혁명에 저해된다면 가족 제도는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한 인간이나 그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줄로 채어준 영역 안에서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악한 제도임을 기억하고 이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 [GNNEWS]



## 마음의 눈을 밝히사 (17)

###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시키거나,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군

주 노릇을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다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도록 기계적으로

입력시켜 버린다면 사랑의 자발성은 없어지고,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말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신 증거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배반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저주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지금도 강제로 빼앗거나 꺾지 않으십니다. 뱀이 유혹하는 그 순간도, 끔찍한 죄의 결과까

지 다 아셨지만, 강제로 개입 하셔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특징인 자유 의지를 빼앗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범죄 한 후에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일을 감당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에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결정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이 가능했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GN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美 오하이오주 애슐랜드시,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회개

밀러 시장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美 오하이오주의 애슐랜드시에서 회개기도집회를 가진 성도들. 출처: 티비넥스트 캡처

미국 오하이오주의 소도시 애슐랜드에서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공직자들과 성도들이 지난 8월 말에 모여 회개기도집회를 가졌다고 성경적 세계관 소식을 전하고 있는 티비넥스트(Traditional Value Next)가 소개했다.

티비넥스트는 인구 5만 명에 이르는 이 애슐랜드시의 매트 밀러

시장을 비롯 지역 고위 공직자와 성도 수백 명이 모여 이 도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역의 죄에 대해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밀러 시장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인 이곳에서 지난 몇 년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며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도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고 말했다. 밀러 시장은 이어 “이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며 “이 도시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최고의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뉴라이프 커뮤니티교회의 데이비드 맥널리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영혼 추수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침례교회 존 부케 목사는 “오하이오주의 88개 카운티의 리더들이 행정을 하나님 주신 사역으로 여기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별한 카운티”라며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매주 교회를 방문하는 기도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GNPNEWS]

## 한·미, 북한 억류 한국인 6명 석방 청원 운동



▲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사람들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청년들과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들은 미국의 인터넷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에서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세이프 식스 코리언스’란 이름으로 지난달부터 북한

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중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는 북한에 빵과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으며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씨는 탈북민 출신이다. 또 조선족 출신의 장만석 선교사 역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한국인 6명의 존엄이 외교(남북) 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로 억제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청원은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져 8만 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판에는 억류 중인 6명은 억울하게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7~8년째 복역 중이라고 설명하며, 6명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GNPNEWS]

## 라오스 기독교, 25년 만에 400명에서 25만 명으로

최근 라오스에서 핍박받던 한 목회자를 통해 67개 교회가 개척되는 등 기독교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는 라오스 한 지역에서 6개월 만에 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며 새 신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에 따라 1994년 400명 정도였던 라오스 기독교인이 2020

년 중순 현재 25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

한국 VOM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지만 공인된 성경학교도, 훈련받은 목회자는 물론 성경책조차 없는 성도가 허다하다. 현숙 폴리 VOM 대표는 “라오스에서 성경을 팔지 않는다. 라오스에서 정부 허가를 받은 유일한 교회인 ‘라오복음교회’에서 성경을 팔고 있지만, 대량

으로 성경을 들여오거나 배포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교인들이 성경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 VOM은 캐나다 VOM과 비영리단체인 비전 비욘드 보더스(Vision Beyond Borders)와 협력, 내년 5월까지 라오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신약성경 10만 권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1~9.12)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파키스탄, 이슬람 개종 거부한 기독교인 사형선고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가 8일 동북부 라호르법원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9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법원은 아시프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글을 전송했다며 3년형과 5만 루피(약 36만 원)의 벌금도 부과해 3년형을 마치면 교수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성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반응이 파키스탄 온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 美 교회, 코로나19 예방 위해 저수지서 예배드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믿음연합그리스도의교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저수지에 배를 띄워 예배를 드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8일 보도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볼드 이글 주립 공원의 저수지에서 카약과 카누 위에 앉아 예배를 드렸고 이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붙들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더불어 삶의 예배 또한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코로나 충격... 서울에서만 2만 개 상가 점포 문 닫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서울에서만 상가 점포 수가 2만 개 넘게 줄었다고 7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 321개로 1분기(39만 1499개)에 비해 5.4%(2만 1178개) 감소했다.

전 세계 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온 절망의 순간을 십자가를 붙드는 기회로 사용해주시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더욱 깨어나길 강청합니다.

#### 美 미시시피주 새 깃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최종 후보

미국 ‘남부 연합기’를 대체할 미국 미시시피주의 새 깃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문구가 포함된 디자인이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새 깃발 후보는 주 위원회의 심사에 오른 3000여 개의 디자인 중에서 9표 중 찬성 8표를 얻어 최종 후보에 낙점됐다.

청교도 신앙의 터에서 태어난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낙태죄 폐지 등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 다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약과 살인,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미국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9월 21일 ~ 10월 3일

- 9월 21일 ~ 9월 26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9.21(10시)~26(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9.21~25(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9.24(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9.25(11~24시) ▶경남 김해 / 최\*\*, 김\*\*가정(김\*\*)010-9922-7123, 9.25~26(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 샘교회(김\*\*)010-3106-3632, 9.25(09시)~26(12시) ▶대구 달성 / 하늘 숲교회(정\*\*)010-9557-5154, 9.25~26(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9.25~26(10~21시) ▶전북 전주 / 주소양교회(최\*\*)010-4661-4039

- 9월 28일 ~ 10월 3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9.28(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9.28~10.2(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9.29(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0.1~3(09~23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10.2(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10.2(20~22시) ▶경북 울릉도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낙태죄 폐기로, 자유롭게 낙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정영선 대표(태아생명살리기위드유캠페인)



© 복음기도신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정되면서 올해 12월 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위중한 때, 그 한복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영선 대표를 만났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일에 나서게 됐을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낙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임신, 출산에 관심 있을 나 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 2월에 친구가 낙태 반대 서명을 받는데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법이 폐지된다는 거야? 뭐가 죄라는 거야?”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게 됐어요.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법정 판결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낙태죄가 폐지되면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많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이 ‘네가 이걸 막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 주님의 말씀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는 기력이 없고 나가는 것도 힘든 때였어요. 일주일 정도 마음의 씨름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수많은 아기들이 나왔어요. 주님이 이 아이들도 네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꿈에서도 그 힘든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 아이들 다 키웠어요.”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제 마음에 기도가 부어지면서 순종하게 됐어요.”

## 낙태 반대 운동을 하다 해킹 공격을 받아

한창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해킹 공격도 받았다고 했다. 온라인 저장소에 올려놓았던 낙태 반대 활동기간의 사진들만 삭제됐다. 정 대표가 가입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도 해커가 침입했다.

신상정보가 모두 털린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는 게 위축되긴 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저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걸음이네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미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반대 서명을 한 장, 한 장 받고 계셨어요. 그렇게 7000명에게 서명을 받으셨더군요. 그 시기는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 명 동의를 얻고 있었고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서명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을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죠. 그렇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교회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가고 전화했어요.”

- 결과는 어땠나요?  
“그때가 3월 초였는데, 2주 만에 12만 명이 서명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에게라도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 누가 기사를 써주겠어요. 서명 덕분에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이에 앞서 광화문에서 3월 30일에 국민대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하니 기사도 나가고 서명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며 공부했어요. 2018년에 가톨릭에서 낙태 반대 100만 명 서명을 제출한 적이 있더군요. 우리 측에서도 거의 20만 명이 채워져 가고 있었고 몇몇 교회에서 보내주기로 한 서명수가 있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낙태 반대 120만 명 기자회견’ 그런데 기자회견 전날

밤에 살펴보니 숫자가 2만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목을 바꿀 수도 없고 아쉽게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서명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딱 2만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 한 달 만에 20만 명 낙태 반대 서명받아

- 기자회견을 바라보셨어요? 직접하신 게 아닌가요?

“기자회견은 친구가 맡았고 저는 뒤에서 일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이 일이 정치적인 일로 보인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내가 이 일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태아들이 매일 죽고 있어. 이것을 안 막으면 우리나라는 끝이야.”라면서 계속 저를 설득해서 신기했어요. 사실 작년에 서명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훌륭한 분들이 이제 나서서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길 바랐죠. 그런데 반대하던 남편이 이 일을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전진하기로 했어요.”

- 최근에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어서 낙태 반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여러 신문에 많이 실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도 있어요. 영상제작과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하루는 20대 자매가 전시해놓은 피켓을 발로 차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쫓아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차냐고 했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건이 안 됐으니까 안 낳았겠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눈빛이 잊

히지 않아요. 이 자매를 위해서라도 더 이 법은 막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요. 크리스천이 가장 걸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낙태 안 하면 내가 책임질 거냐? 아이를 키우는 건 에너지와 시간, 물질이 들어간다.’ 등등 여러 이유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낙태죄가 폐지될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낙태가 법으로 통과되는 것은 막아야 해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낙태를 한 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고 해요. 불임, 자궁 외 임신, 습관성 유산, 죄책감, 우울증, 신경쇠약, 자살충동 등 7가지 질병에 노출되죠. 아무리 ‘여성들이 원한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다. 여성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등의 기사들이 나오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과 권력 같아요. 만약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면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유리한 사례들을 들어서 기사를 내보내요. 그러다 불리해지면 삭제되죠.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들도 이제는 삭제돼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뉴스만 보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낙태에 관한 거짓 뉴스에 속지 말아야

- 블로그 운영도 하시는군요. 이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하시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해요. 예전에 운영했던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블로그와 활동도 다시 시작했고, 태아생명살리기위드유캠페인으로도 활동해요. 10주된 태아

의 발 모양 배지나 태아 모형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요.”

- 활동이 많으신데 후원을 받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모두 자비로 해요. 그래도 지금은 남편이 든든한 지원군이예요. 필요한 것은 적극 돕겠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외로운 싸움같이 보이시네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또 계신가요?



▲ 서울 지하철역 앞에서 낙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공: 정영선 대표

“국회 앞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세요. 강순원 목사님이신데, 2018년 5월부터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헌법재판소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셨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사람은 이런 분이 라고 생각해요. 저도 감동 받아 함께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차도 없이 지하철을 4번 갈아타시면서 매일 나오세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피켓이 제 차안에 다 있어요.(웃음)

-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믿음의 결심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궁금하네요.  
“친정식구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에 나가고 반주도 했어요. 삼촌도 목회자이다 보니 제가 기독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2008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니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새벽기도에 나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잠깐 기도한 것 같았는데 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 그 이후 삶의 변화가 나타났겠군요.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

(6면에 계속)



▲ 정영선 대표가 제작, 배포하는 10주 된 태아의 발 배지와 태아 모형. © 복음기도신문

10<sup>th</sup> 창간 10주년 기념사

##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제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함께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10년간 저희 작은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고백한들 다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감격에만 머물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냉엄합니다.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외풍은 일제시대 105인 사건을 통해 경험한 한국교회핍박 사건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예장총회의 결정으로 시작된 동방요배 이후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 예배금지를 경험하고, 예배 현장에 공무원이 진입해 설교 중인 목회자에게 예배 경위 조사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10년을 맞았다고 감격에만 젖어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이 땅에서 교회의 권위가 어찌다 이토록 참담하게 유린당하게 됐을까요? 혹시 이 시기만 지나면, 이 바람이 잦아들면 괜찮아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런 어려움은 극복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은 박해를 박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라며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암 6:3) 우리가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폭력의 날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의 행태라고 추상(秋霜)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키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 그 원인을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했던 그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되새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달리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부흥의 열기, 교회 성장, 그리고 타락. 이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추락. 우리가 뿌린 두 가지 악을 버리는 유일한 순종은 한국교회 곧 나(我)의 갱신, 회개입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돌이킴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최근 복음기도신문은 이 같은 한국교회의 돌이킴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기 위한 시도를 온라인 신

문을 통해 1년 이상 추진해왔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되리라’ 그 순종의 일환으로 저희 단체 내에 싱크탱크 유틸리티(UTT, Understanding the Times)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뇌된 대한민국, 신화론과 마르크시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GPNEWS]

발행인 김강호 선교사



© 복음기도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외치는 신문이 되어주세요”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로 보게 합니다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복음이 실제 된 증인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매체입니다. 신문 기고를 통해 열방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제 문제에만 매어있는 저를 발견해요. ‘아,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야 열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복음기도신문 안에 있는 다양한 칼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 아트 칼럼을 보면서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영역에서 이런 십자가를 보는 것이구나. 신문을 통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리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초점으로 기사와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점으로 재해석해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의 원의를 보여주는 매체로 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치운 목사(반석 중안교회 / 기고, 316전화 상담, 촬영)

상담을 하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와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귀담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옛 자아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내담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 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복음을 들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인 저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정화 전도사(316전화 상담)

복음기도신문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통신원으로 섬기면서 그 현장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화제의 현장에도, 코로나와 에볼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냥 피하고 돌아가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며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소식들을 열방에 알리고 함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열방으로 보내신 선교사의 사역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때에, 통신원으로 사역지를 돌아보고, 아픔을 보게 하시면서 열방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제 스스로가 먼저 돌아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원으로 섬기며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열방의 아픔을 보며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게 하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생명의 통로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윤성운·김경희 선교사  
(콩고민주공화국 통신원)

삽화를 그리며 믿음 쓰는 훈련을 합니다

저에게 복음기도신문은 작은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였어요. 요청받은 삽화를 그리면서 ‘빨리 하고 넘기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뭘 그리지? 그리기 싫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열심과 최선으로, 연구를 잘해서 빨리 내 버리자는 마음과 사람의 약속에 맞춰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뭘 그리죠?”라고 기도할 때,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를 떠나서 주님이 은혜로 그리게 해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잘 다닐 수 없을 때, 이 작은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기뻐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경선 자매(삽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외치는 신문이 되기를

복음기도신문은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신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외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신문이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신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을 내는 것처럼,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외치는 복음기도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기도신문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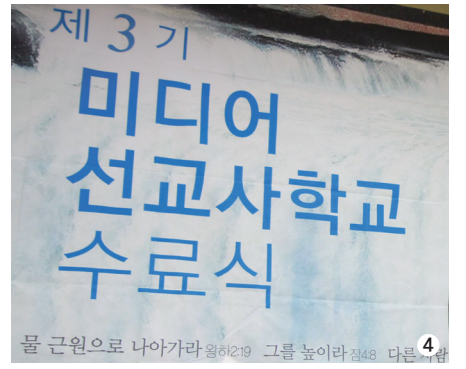
안승용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경건을 열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기도신문은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예요. 이 신문을 읽고 나면, 진짜 좋은 안약을 눈에 다 넣은 것 같아요. 눈의 속 기관까지 다 깨끗해지고 시야가 밝아 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기도신문의 모든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저에게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주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진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로부터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더욱 경건의 열망을 사모하게 합니다. 정말 유익하죠!! 이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과 뉴스들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신지 생각하고 듣고 보게 되어졌어요. 저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준 신문이에요! [GPNEWS]

한정민 선교사(기도24.365본부)





1 복음기도신문 창간호 2 복음기도동맹군들에게 비전을 나누는 모습 3 다시복음앞에 집회에서 촬영으로 섬기고 있는 동역자 4 제3기 미디어선교사학교 수료식 5 복음드라마 녹음현장 6 2015년 남양주 광전리센터로 이전 후 사무실, 숙소 공사

# 사진으로 보는 복음기도신문 10년의 발자취

10년을 돌아본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새롭다. 그때마다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미디어 사역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 열왕기하 2장 21절과 잠언 4장 8절을 믿음으로 취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기로 했다. 회복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고 했다. 6월에 동역자들에게 비전을 나눴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40일 뒤면 이 성이 망한다.' 외마디 비명이라도 지르는 심정으로 매체 발간을 준비했다.

2010년 10월 3일, 8면, 격주간 체제로 창간호가 나왔다.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제작, 배포됐다. 2011년에는 '다시복음앞에' 대회에서 자원하여 참여한 동역자들과 함께 일간체제로 신문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주님은 이어 미디어 사역을 섬길 미디어 전사를 허락하셨다. 미디어선교사를 양성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가 개설됐

다. 2020년부터는 헤브론선교대학교와 함께 미디어선교학교를 운영하며 청년세대 세우고 있다.

주님은 또 이 사역에 함께할 구름같이 허다한 동역자를 허락하셨다. 미디어 사역 단체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 신문제작을 위해 번역하고 기사를 정리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며, 웹사이트 개발과 앱 제작, 전화상담을 위한 316전화 섬김이, 재정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까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 지면 신문을 전달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전달할 보발꾼이자 독자인 수천명의 동역자들이 열방 곳곳에서 신문을 구독하며, 또 전도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 또 다른 기독교매체와 협약을 맺고, 기사 제휴를 통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싱크탱크 UTT(Understanding the Times)를 섬기는 분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 [GPNEWS]



7 인천 항동센터 시절 사역자들과 함께 8 개편된 복음기도신문 웹사이트 9 2019년 갈보리교회에서 진행된 316전화 섬김이 세미나 10 2018 다시복음앞에 집회에서 홍보국으로 섬기고 있는 동역자 11 2015년 4월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동역자 모임 12 복음과기도미디어 출간도서들 13 복음기도신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5)

# 시련을 이겨낸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탄은 동일하게 예배라는 지점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욥이 그랬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사탄은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끈질기게 공격한다.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한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한번 그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등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다. 욥의 인생에 기막힌 일들이 시작된다. 모든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는

다. 그 많던 소유도 순식간에 날아갔다. 욥은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래 없던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라며 예배한다.

## 고난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

사탄은 끈질기게 공격한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겠습니까? 제 몸뚱이를 쳐보시면 당장 예배고 뭐고 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 하에 시험을 허락하신다.

욥의 피부에는 악창이 났고 진물과 고름 범벅이 되었다. 꺾데기가 벗겨지도록 긁어도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고통, 침 삼킬 틈도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그 비참한 모습에 아무 말을 못하고 며칠 동안 통곡할 정도였다. 모든 사람이 비웃고 고



일러스트=이예린

개를 흔들며 떠났다. '아무래도 숨겨놓은 죄가 있나봐!' 욥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혹독한 시련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나 믿은 거 다 헛것이예요.'라 말

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저는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예배했던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예배의 승리. 할렐루야!

## 고난의 끝에 예배로 승리한 욥

사탄의 공격 지점은 명확하다.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기를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사탄의 공격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끝장난다면 큰일이다. 지켜라!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공격 중이다. (2018년 2월) <계속>


[GN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GPM  
GOOSPEL & PRAISE MEDIA

복음기도총서2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낌이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흘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가장 뜨겁게 쏟아 붓는다.

김용의 지음 | 값 9,000원

복음과기도미디어

Interview <3면에 이어>

## 주님 만나고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섬겨


양하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 후배 한 명이 자신이 속해 있는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요.”

- 지금까지 삶과 너무 다른 삶이었네요. 오케스트라는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처음 했던 일이 총무를 맡아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전문 스템이 많이 필요한데요,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스템 회의에도 나가고, 섭외, 복사 등을 다 했어요. 당시 우리 아이들은 4살, 2살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이 일에 전념하게 됐죠. 봉사하면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힘든 날이면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분명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3년을 섬겼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땐 오케스트라에 3명만 남은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오케스트라 찬양 프로그램이 생겨 매일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음악 국제학교도 세워졌어요.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선교단체를 섬기게 됐어요.”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정영선 대표가 교회 성가대의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정영선 대표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이민국 폐쇄 직전 극적으로 비자 발급

올해 2월, 열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N국에 입국했다. 3월이 되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길이 다 막혔다. 하늘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빌 4:6~7)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 곧 이어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 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출 23:20)는 말씀을 붙잡았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기도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수도에 있는 언어학교에 입학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시겠다는 연락을 주셨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나?"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주셨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



일러스트=고은선

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 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민 9:21, 새번역) 하룻밤 만에라도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떠나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수도에 머물렀다. 학교와 은행과 이민국을 여러 차례 오가고 기다린 끝에 일주일 후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게 되었다. 국가 격리로 지역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서류발송부터

통행증 발급의 난관 등 수많은 크고 작은 현실에 부딪쳤지만 모든 고비마다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여셔서 일이 진행되었다.

또한 비자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비자발급 과정 내내 '상식'과 '합리적'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르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다. 이해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시간 이 나라에 대한 불평, 불

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대기하며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다.

수도에서 최종 비자를 받고 작은 택시로 폭우를 뚫고 7시간 이상 달려가 자정을 넘겨 집에 도착했다. 다음 날, 이민국 직원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이민국이 폐쇄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드라마틱하게 비자를 받은 것에 감사했다. 또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을 누비다시피 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다. [GPNEWS]

꺼루나

## 그림 묵상



### 감사함으로 즐거이 외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 95:1~3)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감격하게 되고, 죄인 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노래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Lord!” [GPNEWS]



글. 그림 이수진

## 부흥을 위하여

# 北, 태풍피해로 9·9절 행사 반으로 줄이고 수해 복구 나서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9월 9일 정권수립 일 기념행사를 축소하고 태풍피해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리NK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7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도당(道黨)에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국경절 행사를 이전

의 절반으로 줄이고 전당, 전민이 총동원돼 피해복구 현장들에 내려가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중앙당의 지시문이 하달됐다. 하급 당 일꾼들은 이 같은 지시를 접수하면서 “살면서 이런 큰 피해도 처음 보고, 이런 당의 지시문이 내려오는 것도 처음 본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지난 7일 밤 북한 함경북도 함흥을 지나면서 소멸했으나 함경도는 ‘하이선’으로 인해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

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 노동당원 1만 2000명으로 제1 수도당원사단을 구성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또 원산시에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때 침수됐던 곳이 또 물

에 잠겼으며 송도원 도로는 차단되고, 인근 소나무들이 넘어졌다. 김정은은 지난 7일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를 찾은 자리에서 “함경남도 단천시

와 신포시, 흥원군 등에서는 1000세대가 넘는 가정집이 침수·파괴돼 수많은 이재민들이 길거리에 나왔었다.”며 “이에 우수한 핵심당원 1만 2000명으로 함경도에 급파

할 최정예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중장비와 건설자재가 부족한 북한 사정으로 수해복구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GPNEWS]

### 유엔, 북한에 1년간 강제실종 41건 정보 요청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가리킨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KAL기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법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GPNEWS]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출처: 유튜브 채널 MBCNEWS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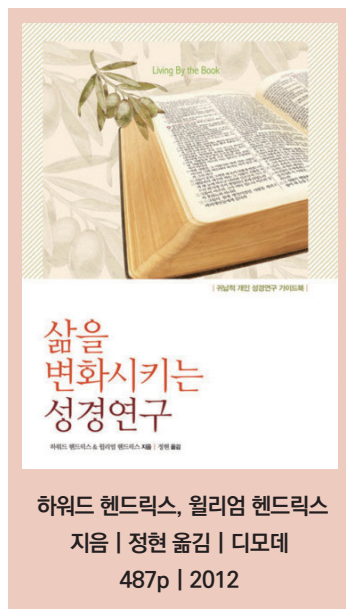


▲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 출처: 유튜브 채널 VOA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하워드 헨드릭스, 윌리엄 헨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 성경은 내 삶을 바꿀 유일한 책이다



한 번 책을 읽은 것으로 마치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과 같이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를 읽으며 내 입에서 이 책은 한 번 읽을 책이 아니라는 혼잣말이 여러 번 튀어나왔다. 다른 여타의 성경을 연구하는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뭔가 기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서일까? 전혀 아니다. 이 책의 성경 연구 방법은 고지식하게 단순하고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방법이다. 성경을 읽으며 관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최소한 진지하게 읽었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진짜 목적이 말씀이 실

제 내 삶에 적용되어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저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세 가지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성경을 관찰하라. 관찰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며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의 같은 문장을 계속 곱씹고 반복하게 만들었는가? 이 책의 성경 연구는 실제적이어서 무언가를 과장하거나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거룩의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들은 정말로 성경이 내 삶을 바꿀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적용해서 성경을 읽어 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책이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 진리를 담은 책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내 삶을 바꿀 성경을 읽어 보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다

또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성경을 통해 변화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입으로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꿈꾸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책을 여는 일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찾을 때뿐이라면 우리가 결코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경 연구는 시작될 수 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싫어

한다.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래서 연구는 커녕 성경을 펼쳐 보지도 않는 것이다. 성경을 열기 전에 솔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촉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이는 변화를 원할 수가 없다. 갈망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성경을 열자. 그리고 말씀에서 얻은 진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짚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세상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다. 책의 내용에 따라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론 새로운 지식들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감동을 받고 모르던 지식을 얻을지라도 대부분



선교 통신

## 신앙보다 종족이 우선되는 슬픈 현실

지난달 발생한 폭동이 진압되고 9000여 명의 폭도들과 주동자가 잡혀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암하라 종족 중 몇몇 사람들이 재(在) 영국 에티오피아 대사관으로 난입, 대사관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데모와 항의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 상원에서 에티오피아 현 연방 정부에 폭동자들을 구속한 건으로 항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누군가가 미 상원에 로비를 한 모양이다. 에티오피아 언론은 대부분 이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왜 인권을 탄압하느냐? 현 정부를 비판한다고 왜 잡아 가두냐? 이전 정부처럼 이렇게 탄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것이다.

참 난감하다. 이전에 그들이 무차별로 파괴한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 당해 상해를 입거나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건 연방 정부가 원조 받아 해결해야 할까? 폭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아니 그것보다 그들이 사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

람의 인권과 재산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에티오피아 헌법에 명시되었을까? 참 편리한 생각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위자들에게 벌인 행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 에티오피아의 거리.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지만,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제공: 다니엘 정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현재 아비 총리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세력이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 연방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지해서인지 총리 선출 선거 일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처음 발표대로라면 8월 중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것도 1차 연기한 일정이다. 선거 일자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

는 폭동 후 에티오피아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있다. 하루에 1000여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사망자는 매일 10여 명이 넘는다. 이것을 선거 연기의 명

인 한 쌍이 탔는데 나란히 앉아 있다. 기사나 기사 보조원도 이들에게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이 둘과 함께 수도까지 14시간을 모험 여행을 했다. 차 안에 마스크를 한 사람을 나를 포함해서 몇 명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9월에 전 학교를 개학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 연방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심분 이용한다는 것을 너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 티그라이주는 연방 정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9월 중에 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 지인을 통해 들었다.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이 싸움에서 신앙보다 종족이 우선이라는 슬픈 현실이 여기 에티오피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교회로 우뚝 세우실 주님을 기대한다. [GNPNEWS]

다니엘 정(본지 통신원)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0. 8. 28 ~ 9. 10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효 김사회 김수미 김일범 김정희 노은옥 문미현 박성규 안민자 안수경 유국주 은종숙 이남준 이영선 이영옥 이준진 이진희 정금자 정영숙 조형광 주유순 차익수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고현교회 목자교회 무안남약행복한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샘물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유림지부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관리교회 원건축설비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헤브론원형학교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